

## 중년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에 관한 연구

이영아·이상은\*\*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시각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Real Somatotype and the Recognized Somatotype of Middle Ages Women

Young-A Lee · Sang-Eun Lee<sup>\*\*</sup>

Doctor's Course, Dept. of Visual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Culture, Kunkuk University  
Prof., Dept. of Apparel Design, Kunkuk University<sup>\*\*</sup>  
(2007. 8. 10. 접수; 2008. 1. 21.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ay the foundation that middle aged woman takes care of more healthy, beautiful, attractive external features and prepares successful ageing on studying a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an actual somatotype and an ideal somatotype after we examine an actual somatotype and an ideal somatotype in the object of about 40~50 middle-aged woman, dwells in Seoul, is the main group of a home consumption socially.

The result of comparing a difference between an actual somatotype and an ideal somatotype was showing that in case of a facial form, the group which their faces are an egg-shaped prefers an egg-shaped and the group which their faces are a round-shaped prefers a round-shaped. In case of a silhouette, all groups prefers a normal type most. In case of a shoulder's type, all groups prefer a normal type most. In case of a shoulder-waist line, all groups prefer a Y line most. In case of a breast's form, all groups prefer a normal type most. In case of a back's form, all groups prefer a normal type most. In case of a buttocks' form, all groups prefers a normal type most. In case of a leg's form, all groups prefers a normal type most.

On putting together research result as yet, middle aged women wish a similar somatotype irrespective of an age, an obesity measurement and this means a recognition of making an effort to be beautiful is ali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 somatotype of middle aged women uprightly and it must be accomplished a continuous, systematic consultation and education about a weight-control on exercising and not to mention of making a desirable eating habit.

**Key Words:** Real somatotype(실제 체형), Recognized somatotype(이상적 체형), Middle ages women (중년여성)

---

Corresponding author ; Sang-Eun Lee

Tel. +82-11-272-3771, Fax. +82-2-450-3304

E-mail : eun-hanbok@hanmail.net

## I. 서론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연장되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 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관심사가 대두되고 있다. 인간은 예로부터 아름다움에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움이란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는데 내적인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sup>1)</sup>

특히, 요즘은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몸짱’ 신드롬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어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여성에게는 몸이 곧 자본’이라는 오늘날의 세태는 TV에 비취지는 연예인과 스타들을 통하여 실감나게 한다. 이러한 외모중시 풍조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부터 다이어트, 성형, 체형 관리, 피부 관리에 집착하는 여성들과 일부 중년여성까지 몸 관리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sup>2)</sup>

환경기의 시작과 함께 노화의 진행을 겪게 되는 중년의 여성들에게 ‘건강’과 ‘자기관리’는 최대의 관심사이다. 갱년기 중 발생하는 환경은 생물학적 연령의 한 단계로 어머니 역할로부터

의 해방, 난자 생산의 종결, 노년기의 시작을 의미하며, 여러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불안감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에게는 건강 관리와 젊음의 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다. 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으나<sup>3),4),5),6),7),8),9),10),11),12),13),14)</sup> 중년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정 소비의 주체가 되는 서울의 40-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그들은 실제로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체형을 지향하고,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간의 비교를 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설문 결과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중년 여성들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고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이상적 체형으로 가기 위한 의복의 디자인 원리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

<표1>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

구분		Frequency(인원수)	Percent(백분율)
연령	40대	100	50.0
	50대	100	50.0
학력	중졸이하	47	23.5
	고졸	98	49.0
	전문대졸	19	9.5
	대졸	30	15.0
	대학원이상	6	3.0
직업	주부	100	50.0
	전문직	40	20.0
	자영업	24	12.0
	회사원	23	11.5
	공무원	2	1.0
	기타	11	5.5
Total		200	100.0

적 체형의 인지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50대의 중년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40-50대 여성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간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경숙(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sup>15)</sup> 측정도구는 크게 인구통계적 요인,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적 요인은 연령, 학력, 직업 3문항,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은 9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ver 13.0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제체형과 이상체형간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과 같다. 연령에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50.0%로 나타난다. 학력에서는 고졸이 49.01%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하, 대졸, 전문대졸, 대학원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가 50.0%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본인얼굴형과 이상적 얼굴형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유의수준 0.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본인 얼굴이 계란형이 집단은 73.6%가 계란형을 선호하며, 둥근형인 집단은 69.9%가 둥근형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삼각형과 사각형은 모두 계란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실루엣과 이상적 실루엣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유의수준 1%에서

<표2> 얼굴형에 대한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구 분	본인 얼굴형				Total	X <sup>2</sup> 통계량, p(유의도)	
	계란형	둥근형	삼각형	사각형			
이상적 얼굴형	계란형	39 73.6%	28 30.1%	21 70.0%	15 62.5%	103 51.5%	68.250*** .000
	둥근형	14 26.4%	65 69.9%	5 16.7%	8 33.3%	92 46.0%	
	삼각형			4 13.3%		4 2.0%	
	사각형				1 4.2%	1 .5%	
Total	53 100.0%	93 100.0%	30 100.0%	24 100.0%	200 100.0%		

\*\*\*: p<.001

&lt;표3&gt; 실루엣에 대한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구 분		본인 실루엣					Total	$\chi^2$ 통계량, p(유의도)
		일자형	보통형	상체발달형	하체발달형	허벅지발달형		
이상적 실루엣	일자형	2 20.0%	2 5.0%	4 9.8%	12 14.5%	5 19.2%	25 12.5%	27.663** .006
	보통형	6 60.0%	27 67.5%	32 78.0%	44 53.0%	7 26.9%	116 58.0%	
	상체발달형	2 20.0%	1 2.5%	1 2.4%	6 7.2%	3 11.5%	13 6.5%	
	하체발달형		10 25.0%	4 9.8%	21 25.3%	11 42.3%	46 23.0%	
Total		10 100.0%	40 100.0%	41 100.0%	83 100.0%	26 100.0%	200 100.0%	

\*\*: p&lt;.01

&lt;표4&gt; 어깨형태에 대한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구 분		본인 어깨형태					Total	$\chi^2$ 통계량, p(유의도)
		보통형	숏은어깨형	처진어깨	한쪽어깨치짐	한쪽어깨숏음		
이상적 어깨형태	보통형	90 82.6%	14 63.6%	30 85.7%	21 95.5%	10 83.3%	165 82.5%	11.605 .170
	숏은어깨형	5 4.6%	1 4.5%	2 5.7%	1 4.5%		9 4.5%	
	처진어깨	14 12.8%	7 31.8%	3 8.6%		2 16.7%	26 13.0%	
Total		109 100.0%	22 100.0%	35 100.0%	22 100.0%	12 100.0%	200 100.0%	

&lt;표5&gt; 어깨-허리라인에 대한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구 분		본인 어깨 허리 라인				Total	$\chi^2$ 통계량, p(유의도)
		Y라인	X라인	H라인	A라인		
이상적 어깨-허리라인	Y라인	18 66.7%	30 83.3%	59 63.4%	30 68.2%	137 68.5%	4.818 .186
	X라인	9 33.3%	6 16.7%	34 36.6%	14 31.8%	63 31.5%	
Total		27 100.0%	36 100.0%	93 100.0%	44 100.0%	200 100.0%	

<표6> 가슴형태에 대한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구 분		본인 가슴형태					Total	$\chi^2$ 통계량, p(유의도)
		납작형	보통형	돌출형	새가슴형	처진가슴		
이상적 가슴형태	납작형		1 3.8%	1 2.8%	1 2.3%	2 2.4%	5 2.5%	2.518 .961
	보통형	11 91.7%	22 84.6%	30 83.3%	33 76.7%	66 79.5%	162 81.0%	
	돌출형	1 8.3%	3 11.5%	5 13.9%	9 20.9%	15 18.1%	33 16.5%	
Total		12 100.0%	26 100.0%	36 100.0%	43 100.0%	83 100.0%	200 100.0%	

차이를 보였으며, 본인이 일자형, 보통형, 상체 발달형, 하체발달형인 집단은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며, 허벅지발달형은 하체발달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어깨형태과 이상적 어깨형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며, 본인이 보통형, 숏어깨형, 처진어깨, 한쪽어깨치짐, 한쪽어깨 숏음형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어깨-허리라인과 이상적 어깨-허리라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본인이 Y라인, X라인, H라인, A라인인 집단에서 모두 Y라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X라인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가슴형태과 이상적 가슴형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며, 본인이 납작형, 보통형, 돌출형, 새가슴형, 처진가슴형인 집단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였고, 돌출형, 납작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배형태와 이상적 배형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본인이 날씬형, 보통형, 비만형, 겹친형에서는 날씬형을 더 선호하였고, 위아래 볼록형, 아래볼록형에서는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등형태와 이상적 등형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8>과 같다. 통계적으로 차이

<표7> 배형태에 대한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구 분		본인 배형태					Total	$\chi^2$ 통계량, p(유의도)	
		날씬형	보통형	위아래볼록형	아래볼록형	비만형			겹친형
이상적 배형태	날씬형	10 62.5%	17 60.7%	14 35.0%	18 48.6%	19 51.4%	26 61.9%	104 52.0%	14.500 .151
	보통형	6 37.5%	11 39.3%	26 65.0%	19 51.4%	16 43.2%	15 35.7%	93 46.5%	
	위아래볼록형					2 5.4%	1 2.4%	3 1.5%	
Total		16 100.0%	28 100.0%	40 100.0%	37 100.0%	37 100.0%	42 100.0%	200 100.0%	

&lt;표8&gt; 등형태에 대한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구 분		본인 등형태				Total	X <sup>2</sup> 통계량, p(유의도)
		플랫형	보통형	약간굽은형	심한돌출형		
이상적 등형태	플랫형	8 29.6%	5 13.2%	30 27.0%	7 29.2%	50 25.0%	3.616 .306
	보통형	19 70.4%	33 86.8%	81 73.0%	17 70.8%	150 75.0%	
Total		27 100.0%	38 100.0%	111 100.0%	24 100.0%	200 100.0%	

&lt;표9&gt; 엉덩이 형태에 대한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구 분		본인 엉덩이형태				Total	X <sup>2</sup> 통계량, p(유의도)
		처진형	보통형	작은형	큰형		
이상적 엉덩이형태	보통형	43 60.6%	16 57.1%	17 73.9%	41 52.6%	117 58.5%	15.618* .016
	작은형	17 23.9%	8 28.6%		11 14.1%	36 18.0%	
	큰형	11 15.5%	4 14.3%	6 26.1%	26 33.3%	47 23.5%	
Total		71 100.0%	28 100.0%	23 100.0%	78 100.0%	200 100.0%	

\*: p&lt;.05

&lt;표10&gt; 다리형태에 대한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비교분석

구 분		본인 다리형태				Total	X <sup>2</sup> 통계량, p(유의도)
		보통형	허벅지발달형	일자형	O자형		
이상적 다리형태	보통형	81 86.2%	26 52.0%	20 54.1%	9 47.4%	136 68.0%	29.271*** .000
	허벅지발달형	1 1.1%	6 12.0%	3 8.1%	3 15.8%	13 6.5%	
	일자형	12 12.8%	18 36.0%	14 37.8%	7 36.8%	51 25.5%	
Total		94 100.0%	50 100.0%	37 100.0%	19 100.0%	200 100.0%	

\*\*\*: p&lt;.001

<표11> 학력과 직업별 이상적 체형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학력		직업		Total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전업주부	직장있음	
얼굴형	계란형	70(48.3%)	33(60.0%)	48(48.0%)	55(55.0%)	103(51.5%)
	등근형	70(48.3%)	22(40.0%)	51(51.0%)	41(41.0%)	92(46.0%)
	삼각형	4(2.8%)			4(4.0%)	4(2.0%)
	사각형	1(.7%)		1(1.0%)		1(.5%)
$\chi^2, p$		3.555, .314		6.563, .087		
실루엣	일자형	18(12.4%)	7(12.7%)	9(9.0%)	16(16.0%)	25(12.5%)
	보통형	85(58.6%)	31(56.4%)	65(65.0%)	51(51.0%)	116(58.0%)
	상체발달형	10(6.9%)	3(5.5%)	6(6.0%)	7(7.0%)	13(6.5%)
	하체발달형	32(22.1%)	14(25.5%)	20(20.0%)	26(26.0%)	46(23.0%)
$\chi^2, p$		.364, .947		4.509, .211		
어깨형태	보통형	121(83.4%)	44(80.0%)	88(88.0%)	77(77.0%)	165(82.5%)
	숏은어깨형	9(6.2%)		6(6.0%)	3(3.0%)	9(4.5%)
	처진어깨	15(10.3%)	11(20.0%)	6(6.0%)	20(20.0%)	26(13.0%)
$\chi^2, p$		6.331*, .042		9.272*, .010		
어깨-허리라인	Y라인	99(68.3%)	38(69.1%)	69(69.0%)	68(68.0%)	137(68.5%)
	X라인	46(31.7%)	17(30.9%)	31(31.0%)	32(32.0%)	63(31.5%)
$\chi^2, p$		.012, .912		.023, .879		
기슴형태	남작형	2(1.4%)	3(5.5%)	3(3.0%)	2(2.0%)	5(2.5%)
	보통형	116(80.0%)	46(83.6%)	81(81.0%)	81(81.0%)	162(81.0%)
	돌출형	27(18.6%)	6(10.9%)	16(16.0%)	17(17.0%)	33(16.5%)
$\chi^2, p$		4.151, .125		.230, .891		
배형태	날씬형	79(54.5%)	25(45.5%)	52(52.0%)	52(52.0%)	104(52.0%)
	보통형	63(43.4%)	30(54.5%)	47(47.0%)	46(46.0%)	93(46.5%)
	위아래불룩형	3(2.1%)		1(1.0%)	2(2.0%)	3(1.5%)
$\chi^2, p$		2.819, .244		.344, .842		
등형태	플랫형	38(26.2%)	12(21.8%)	26(26.0%)	24(24.0%)	50(25.0%)
	보통형	107(73.8%)	43(78.2%)	74(74.0%)	76(76.0%)	150(75.0%)
$\chi^2, p$		.410, .522		.107, .744		
엉덩이형태	보통형	87(60.0%)	30(54.5%)	56(56.0%)	61(61.0%)	117(58.5%)
	작은형	26(17.9%)	10(18.2%)	22(22.0%)	14(14.0%)	36(18.0%)
	큰형	32(22.1%)	15(27.3%)	22(22.0%)	25(25.0%)	47(23.5%)
$\chi^2, p$		.664, .718		2.183, .336		
다리형태	보통형	98(67.6%)	38(69.1%)	68(68.0%)	68(68.0%)	117(58.5%)
	작은형	9(6.2%)	4(7.3%)	5(5.0%)	8(8.0%)	36(18.0%)
	큰형	38(26.2%)	13(23.6%)	27(27.0%)	24(24.0%)	47(23.5%)
$\chi^2, p$		.186, .911		.869, .648		

\*: p<.05

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본인이 플랫폼형, 보통형, 약간 굽은형, 심한돌출형인 집단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엉덩이 형태과 이상적 엉덩이 형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9>와 같다.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본인 엉덩이 형태가 처진형, 보통형, 작은형, 큰형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처진형, 보통형에서는 작은형이 높게 나타났고, 작은형, 큰형에서는 큰형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인 다리형태와 이상적 다리형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유의수준 0.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본인이 보통형, 허벅지발달형, 일자형, O자형인 집단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하지만, 허벅지발달형, 일자형, O자형인 집단에서는 일자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직업별 이상적 체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깨형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어깨형태에서는 학력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나, 솟은어깨형은 고졸이하가 처진어깨형은 전문대졸 이상이 더 선호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보통형을 모두 선호하였으나, 처진어깨형은 직장을 가진 집단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가정소비의 주체가 되는 서울의 40-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제 체형과 이상적인 체형을 살펴보고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인식 차이를 연구하여 중년 여성들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고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 <표11>과 같다.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

과, 얼굴형의 경우 본인 얼굴이 계란형이 집단은 계란형을 선호하며, 둥근형인 집단은 둥근형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삼각형과 사각형은 모두 계란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실루엣의 경우 본인이 일자형, 보통형, 상체발달형, 하체발달형인 집단은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며, 허벅지발달형은 하체발달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어깨형태의 경우 본인이 보통형, 솟은어깨형, 처진어깨, 한쪽어깨치짐, 한쪽어깨숯음형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어깨-허리라인의 경우 본인이 Y라인, X라인, H라인, A라인인 집단에서 모두 Y라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형태의 경우 본인이 납작형, 보통형, 돌출형, 새가슴형, 처진가슴형인 집단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형태의 경우 본인이 날씬형, 보통형, 비만형, 겹친형에서는 날씬형을 더 선호하고, 위아래 복록형, 아래복록형에서는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등형태의 경우 본인이 플랫폼형, 보통형, 약간굽은형, 심한돌출형인 집단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엉덩이 형태의 경우 본인 엉덩이 형태가 처진형, 보통형, 작은형, 큰형에서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처진형, 보통형에서는 작은형이 높게 나타났고, 작은형, 큰형에서는 큰형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리형태의 경우 본인이 보통형, 허벅지발달형, 일자형, O자형인 집단에서 모두 보통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하지만, 허벅지발달형, 일자형, O자형인 집단에서는 일자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력과 직장여부별로는 이상체형에 대한 인식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실제체형에 상관없이 이상적 체형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년여성의 경우 나이와 비만도, 학력, 직업에 상관없이 자신이 바라는 체형은 비슷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중년여성이 원하는 이상적 체형으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원리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상의 한계로서 본 연구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년여성의 외적인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만 설문하였고 그들이 추구하는 내면적인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대한 설문을 추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손희순 (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 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이정임 (2001). 한국인 여성의 표준체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논문.
- 3) 박영택, 김성득 (1999). 최적 표준 치수 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 공학회지* 11(1), pp.39-47.
- 4) 송경자 (1999). 신체 이미지·자아존중감이 의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정홍숙, 정삼호 (1990). 성인 여성의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와 체형 및 연령과의 관계. *중대가정논총* 4.
- 6) 이주영 (2003). 중년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영륜 (1981).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노영경 (2005). 체형만족도와 섭식장애 및 자존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김나영 (2006). 일하는 중년여성의 몸 변형 경험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혜경, 김순자 (1995). 중년 여성의 의복 구성을 위한 상반신 체형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19(6), pp.1027-1039.
- 11) 이선경, 고애란 (1995). 남성의복 착용자의 의복 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II) -직업관련 특성 및 외모 특성 추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4), pp.565-579.
- 12) 신호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이연희 (1996). 유행 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조성아 (1991). 여고생의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이경숙 (2004). 대학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